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Abuse

고 정 자*

Ko, Jung Ja

김 갑 숙**

Kim, Gab 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realities of the child abuse,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child abuse, and to screen their causes.

For the data set 521 elementary school children and mothers living in pusan were chosen. The data were analyzed with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using X^2 , the one-way ANOVA, the factor analysis, and the path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rist, in most of families there are child abuse.

Second, among family environmental variables, the father's dissatisfaction with job, the family's social-economic status, violence observation, violence experience influence the child abuse.

Third, marital conflict influences marital violence and child abuse, marital violence influences child abuse.

I. 서 론

1. 문제의 제기

부부는 성장과정, 가정환경, 교육배경 등 생활 환경과 경험이 다른 남녀의 결합이므로 결혼생활의 과정에서 상호간의 가치관과 지적 판단의 차이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의 갈등과 충돌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부부간의 갈등은 상대방의 자아를 새로 발견하

거나 유지하는 수단이 되고 타인과 비교하여 상대방의 가치, 욕구, 목표를 깨닫게 되며(Strong, Devault, Suid, & Reynolds, 1983) 자신과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 갈등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하면 복종과 회피로서 갈등에 대처하거나 직접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하기도 하며, 나아가 그 문제와 직접 관계없는 자에게 공격적 행동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또한 폭력을 당한 부부중 나머지 한 사람은

* 동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영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사

자신보다 약한 자녀에게 자신의 분노를 치환시킬 수도 있다. 이와같이 부부갈등의 결과로 폭력이 발생하면 아동에게 다시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차적인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는 물론 심한 굴욕감과 함께 정신병리적 증상까지 초래하며 또한 폭력행동의 학습장이 되게 한다(Steinmetz, 1977). 그리하여 폭력가정의 자녀들은 좌절 상황이나 문제 해결 장면에서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크므로(Graybill, 1985; Haskett, 1990)가정폭력은 사회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의 폭력을 관찰한 아동은 장기간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Haviland, 1989), 문제행동 및 청소년 비행을 일으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McCord, 1983; Mies, 1987)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므로써 일종의 사회범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녀학대행동은 단순히 가정문제라기 보다는 사회문제 발생의 한 요인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체벌이 훈육 수단으로 인정되어 왔고, 자녀 양육방식을 부모의 권리로 보는 사회 문화 속에서 체벌이 용인되어 왔으므로 자녀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자녀학대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도적 법적 장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1985년 7월 서울시에 「아동권의 보호 신고소」가 개설되었으며, 뒤이어 지역별로 「아동학대 상담 신고 센터」가 개설되고 아동학대 예방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하여 아동의 치료에서부터 법률적 처리까지 도와주게 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회복지 제도적 접근과 전문적 서비스 개입을 위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으로 아동구타에 대한 이론적 고찰(곽영숙·홍강의, 1987; 곽은주, 1977; 이영숙, 1984)을 제외한 실증적인 연구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김광일·고복자, 1987; 김정준, 1986; 신영화, 1986; 안동현·홍강의, 1987; 황영희, 1984). 이상의 선행연구에서는 소수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임상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학대의 실태만을 조사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일반가정에서 자녀학대를 일으키는 계변인을 알아보고, 자녀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부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Gil, 1971; Kempe, 1962; Straus et al., 1980) 부부폭력과 자녀학대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부부갈등, 부부폭력 및 자녀학대를 연결시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학대행동의 실태를 파악하며, 더 나아가 부부 간의 갈등에 따라 자녀학대 양상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부갈등, 부부폭력 및 자녀학대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자녀학대행동의 근원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가정에서의 폭력행동을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용어의 정리

이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부부갈등(marital conflict) : 부부갈등이란 부부 상호 관계에 있어서 부족한 자원이거나 상충되는 목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척도로 측정된 득점을 합하여 부부갈등의 정도로 나타내었다.

2) 폭력(violence) : 폭력이란 상대방에게 완력이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으로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일으키는 행동으로 정의하며, 본 연

구에서는 갈등책략척도의 하위척도로 ‘물건을 던짐’ ‘밀거나 움켜잡는 행동’ ‘뺨을 때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구타’ ‘단단한 물건으로 때림’ ‘녹초가 되게 때림’ ‘칼·흉기로 생명 위협’ ‘칼·흉기를 사용’하는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3) 자녀학대(child abuse) : 자녀학대란 부모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소극적·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유기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신체적인 학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4) 폭력관찰(observed violence) : 성장과정에서 부모가 서로 때리면서 싸우는 것을 목격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찰의 빈도로 나타내었다.

5) 폭력경험(experienced violence) : 성장과정에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맞아 본 경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모로부터 맞은 빈도로 나타내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동학대의 정의

학대의 개념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양하고 상이한 사회문화 집단간에도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학대를 한 마디로 정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학대에 대한 개념은 Kempe와 그 동료들(1962)이 “피학대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을 발표한 이래에 학대에 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그 개념의 폭도 확대되어 왔다. Kempe(1962)는 아동학대는 “부모나 돌보는 사람에게 의해 어린아동에게 가해지는 심각한 손상”이라 정의 하였다. 이러한 정의는 신체적인 상처에만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학대받은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심리적 손상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Kempe와 Helfer(1972)는 여기서 한단계 발전시켜 의도성으로 아동학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아동이 신체적 상해를 입는 것”을 아동학대라 하였다. Gil(1971)은 “아동학대란 아동을 보살피며 상호작용하는 부모나 다른 양육자가 아동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의도적이며 비우발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아동을 방치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와같이 의도성으로 설명하는 정의는 관찰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아동학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이와 Fontana(1973)는 “아동의 잠재되어 있는 발달이 지적, 정서적, 신체적 고통으로 인하여 지체되거나 억압 당하게 되는 모든 대우로서 소극적(정서적, 물질적 요구의 결손) 적극적(언어적 학대, 구타)행위를 냉대라고 볼 수 있다”고 하여 학대와 방임을 냉대의 개념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다. Harperin(1979)는 학대와 방임을 한데 묶어 냉대로 보고 그 영역을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방임, 의료적 방임, 정서적 학대,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유기, 복합 영역의 9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Martin과 Walters(1982)는 유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양육태만, 성적 학대의 6개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황영희(1984)는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저질러진 만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잘못된 댓가로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주는 것”이라 정의하고 신체적 폭력, 아동 방임, 심리적·정서적 학대를 포함시키고 있다. 신영화(1986)는 학대를 “부모나 양육에 책임이 있는 성인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라 하고 그 범위를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규정하였다.

이상의 정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부모가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소극적·적극적인 행위”라 정의 하였다.

2. 부부갈등과 자녀학대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그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부부간의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이것이 아동에게 확산되어 아동에게 공격을 가하기도 한다.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Friedman(1981)은 아동의 혐오적인 행동과 결혼생활의 갈등을 들고 있으며, Gil(1971)도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싸움을 지적하고 있다. 신영화(198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폭력적인 싸움이 아동학대를 가장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폭력과 자녀학대가 관련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Whipple(1989)의 연구에서는 학대하는 어머니는 빈번한 가정 생활 사건 때문에 더욱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정 생활 사건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지각을 하였다. 또한 결혼 불만족감과 사회적 고립감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학대적인 아버지는 비학대적인 아버지보다 더 자주 자녀를 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Deutsch(1980), Calvert(1986)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부모는 학대하지 않는 부모보다 스트레스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ussin(1988)은 중·상류 백인 부모가 자녀에게 사용하는 신체적 체벌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의 부모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한 번 이상은 구타를 하였으며, 좌절이나 분노시에 더 많이 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과 아동학대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부갈등의 해결을 위해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가정은 아동 훈육에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신영화, 1986; Gayford, 1975;

McCord, 1979; Steinmetz, 1977). 아동에 대한 체벌은 배우자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 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쉽게 용납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신의 내적 감정에 대한 왜곡 반응으로 자신의 갈등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구타행위를 하게 된다. Straus등은(1980) 남편에게 구타를 받은 아내는 그렇지 않은 아내보다 자기 자녀를 122% 더 학대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부부갈등과 부부폭력은 자녀학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자녀학대와 가족환경변인과의 관계

(1) 연령

자녀학대와 부모의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Whipple(1989)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젊은 어머니가 아동에게 신체적으로 구타하는율이 높았다. 신영화(1986)는 일반아동과 가출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구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일반아동의 경우는 부모의 연령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출아동에서는 아버지의 연령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어 아버지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 신체적 학대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2) 교육수준

신영화(1986)의 연구에서는 일반아동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 수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인정되어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높았다. Deutsch(1980), Hayton(198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학력이 낮을수록 아동학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reiner(1987)는 교육 수준이 낮고 생활에 있어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이 폭력적이라 하여 일관성있게 나타났다.

(3) 직업과 직업 불만족도

자녀학대는 실업이나 직업 수준이 낮을 때 많이 발생하고 있다. Gil(1970)의 연구에서도 구타하는 아버지의 50%가 구타 행위 하기 1년 전부터 실직되어 있었고 12%는 구타 행위 당시 무직으로 나타났다. Cantrall(1990)은 아버지가 실업인 경우 자녀학대가 더 빈번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직업 수준은 폭력 사용과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신영화(1986)의 연구에서도 아버지가 무직인 경우 신체적 학대율이 높았고 직업 수준이 높을 때 아동 학대율이 낮았다. 또한 아동학대 부모는 다른 통제집단의 부모보다 직업에서의 능력이 부족했으며(Deutsch, 1980; Hayton, 1983), Whipple(1989)의 연구에서도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가정은 의미있게 수입이 낮았다.

이상의 대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아버지가 실직 상태이거나 직업 서열이 낮고 수입이 낮은 경우 자녀 학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아버지가 실직하였거나 자기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좌절감을 자녀에게로 표출시켜 다른 자질의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4) 폭력관찰과 폭력경험

Straus팀(1980)은 10대였을 때 구타 당한 경험이 많은 응답자가 그들 자신의 자녀에게 심한 공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Cappell & Heiner(1990)도 성장과정에서 부모로부터 공격을 받은 여성은 그들의 자녀에게 공격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Cantrall(1990)의 연구에서는 출생가족에서의 학대경험은 부부 간이나 형제 간의 학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자녀학대에는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육체적으로 학대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그들

의 자녀들을 학대하는 경향이 높다(Clausen, 1989; Gil, 1970; Hayton, 1983; Kalmuss, 1984; Kempe et al., 1962)는 연구들이 제시되었고,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받거나 부모의 폭력을 관찰한 아동의 경우 공격성이 높게 나타나(노치영, 1988; 이현순, 1982; 최윤라, 1989) 폭력의 세대간의 연속성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Christopoulos(1987)은 40명의 학대받는 여성과 아이들, 40명의 일반 가정의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개인과 가족의 적용에 대해 비교 분석한 결과 학대받는 여성의 아들이나 딸은 내외적인 문제에 있어 위험 정도는 높았지만 소년들은 과잉 공격성을 지니지는 않았고, 소녀들은 희생자 같이 행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양친의 갈등이나 폭력을 목격함으로써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5) 음주

Giovannoni(1971)는 학대하는 가정에서는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미국인문학 협회(1978)에서도 16,040건의 사례보고에서 학대가정과 자녀방임가정에서는 적정 수준의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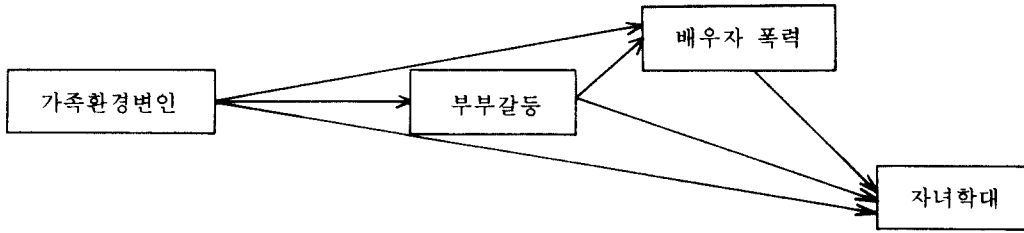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의 구성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폭력이론과 선행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가족환경변인과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인과적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1)

앞에서 제시한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연구하고자 하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가정 내에서 자녀학대행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1

2)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자녀학대행동의 차이는 어떠한가?

3) 가족환경변인, 부부갈등 및 부부폭력행동이 자녀학대행동에 인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부산 시내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5학년 학생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국민학교 아동의 자녀학대가 중학교나 고등학교 자녀학대보다 횟수가 많고 자신의 경험과 사고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학년이기 때문이었다.

예비조사는 2차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1차 예비조사는 1990년 12월 부산시 동래구에 소재한 국민학교 3학년, 5학년 학생 각 50명과 그 아동의 어머니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아동의 이해도가 낮은 문항과 신뢰도 검증 결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문항은 수정·보완하여 제2차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예비조사 결과 3학년 학생은 문장의 의미해석이 부족하였으며, 주의폭이 산만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제2차 예비조사에서는 3학년은 제외시키고 1991년 1월 천주교회 주일학교 5학년 학생 60명과 그 아동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1년 2월 7일-21일 까지 실시되었다. 표본은 교육 구청별로 학생수에 비례하여 먼저 학생수를 정하고 그후 학급수를 정하여 그 학급의 학생을 표집하는 다단계 집단별 무작위 표집을 하였다. 표본조사는 연구자와 실시 방법 및 주의 사항을 교육받은 대학교 여학생 3명이었다.

조사방법은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아동용은 조사원이 국민학교의 해당 학급을 방문하여 질문지를 배부하고 구체적인 내용 및 작성요령을 설명한 후 작성케 하여 회수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는 아동을 통해 배부한 다음 2일 후에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765부를 배부하여 아동용은 전부 회수되었고, 어머니용은 621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내용기재가 부실하거나 부부갈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결손가정을 제외시킨 521부를 본 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와 참고 문헌을 토대로 본 연구자가 작성한 것으로 아동용과 어머니용으로 구성하였다. 아동용 질문지는 아동들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교사에게 의뢰하여 문장을 검토받고 예비조사를 거쳐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1) 부부갈등척도

부부갈등척도(marital conflict scale)는 이신영(1983), 김양희(1986), 송영자(1986), 박선미(1987)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연구자가 직접 46문항을 작성하였다. 각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서 아주 그렇다 5점, 전혀 아니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alpha = 0.9481$ 로 나타나 믿을만한 척도로 인정되었다. 부부갈등 척도의 타당도는 관련분야 교수 3인에 의하여 타당도를 인정받았다.

(2) 갈등전략척도

갈등전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는 Straus(1979)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없다에 1점, 1년에 1-2번 이상에 2점, 1달에 1-2번 이상에 3점, 1주에 1-2번 이상에 4점, 거의 매일에 5점을 주었다. 신뢰도 계수는 남편의 아내폭력(H-W)인 경우는 Cronbach $\alpha = 0.8327$ 이었고, 아내의 남편폭력(W-H)인 경우는 Cronbach $\alpha = 0.7726$ 이었다.

갈등전략척도(CTS)의 4요인들의 이론적 구성을 바탕으로 이 요인이 예상대로 추출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한 후 varimax 회전방법으로 직교회전 하였다. 분석 결과 C.T.S는 4개의 요인으로 구분되며 H-W의 C.T.S는 요인 1을 가벼운 폭력행동, 요인 2를 심한 폭력행동, 요인 3을 언쟁 행동, 요인 4를 논의행동으로 명명하였으며, 총 설명변량은

63.3%였다. W-H의 C. T. S.는 요인 1을 심한 폭력행동, 요인 2를 가벼운 폭력행동, 요인 3을 언쟁 행동, 요인 4를 논의행동으로 명명하였다. 이 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60.0%였다.

(3) 자녀학대척도

자녀학대척도(child abuse scale)는 Straus(1979)의 갈등전략척도를 번안하여 아동에게 맞게 수정하였고, 신영화(1986), 최윤라(1989)의 연구 등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였다. 자녀학대에 관한 문항은 총 10문항이었으며 5점 Likert척도로 전혀 없다에 1점, 1년에 1-2번 이상 2점, 1달에 1-2번 이상 3점, 1주에 1-2번 이상 4점, 거의 매일에 5점을 주었다. 각 문항 중 2문항은 전체에 대한 문항별 상관관계를 산출한 결과 상관관계가 낮아 제외 시켰다.¹⁾

조사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어머니-자녀학대는 cronbach $\alpha = .5623$, 아버지-자녀학대는 .5552이었다. Spearman-Brown 공식으로 산출한 어머니-자녀학대의 기우반분신뢰도(奇遇半分信賴度) 계수는 .618이었고, 아버지-자녀학대의 기우반분 신뢰도 계수는 .609이었다.

최종 선정된 문항으로 구성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2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요인의 총 설명변량은 44.5%였다. 요인 1을 심한 학대행동, 요인 2를 가벼운 학대행동으로 명명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한 자료는 SPSS PC+ program을 이용하여 처리되었다.

1) 제외된 문항은 '담뱃불이나 뜨거운 것으로 지짐'(어머니-자녀학대의 경우는 응답이 없었으며, 아버지-자녀학대의 경우 $r = .0220$) '칼이나 흉기로 위협함'($r = .1541$, $r = .051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측정도구 작성을 위하여 신뢰도(reliability),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빈도, 백분율, χ^2 , one-way ANOVA,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적용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	변인	구분	빈도 (%)	
연령	34세 이하	62(11.9)	연령	34세 이하	6(1.2)	
	35-39세	291(55.9)		편	35-39세	134(25.7)
	40-44세	138(25.6)		의	40-44세	254(48.8)
	45세 이상	30(5.8)		연	45-49세	104(20.0)
결혼내연률	20세 이하	33(1.3)	결혼내연률	50세 이상	23(4.4)	
	21-23세	222(42.6)		결	24세 이하	58(11.1)
	24-26세	224(43.0)		남혼편	25-27세	212(40.7)
	27세 이상	42(8.1)		연	28-30세	201(38.6)
교육수준	국졸	77(14.8)	교육수준	31세 이상	50(9.6)	
	내중	178(34.2)		남	국졸	33(6.3)
	교고	205(39.3)		편	중졸	99(19.0)
	육전문대	16(3.1)		교	고졸	254(48.8)
	수대학	39(7.5)		육	전문대졸	33(6.3)
	준대학원이상	6(1.2)		수	대학졸	87(16.7)
가구소득	40만원 미만	43(8.3)	가구소득	대학원이상	15(2.9)	
	40-60만원 미만	123(23.6)		결혼생활기간	12년 이하	119(22.8)
	60-80만원 미만	127(24.4)		지속	13-15년	233(44.7)
	80-100만원 미만	119(22.8)		생연	16-18년	106(20.3)
	100-120만원 미만	40(7.7)		환수	19-21년	47(9.0)
	120만원 이상	69(13.2)			22-24년	10(1.9)
아내관찰	전혀없음	359(68.5)	아내관찰	25년 이상	6(1.2)	
	가끔있음	152(29.0)		폭	전혀없음	303(57.8)
	자주있음	11(2.1)		남력	가끔있음	199(38.0)
	거의매일	2(0.4)		편관찰	자주있음	21(4.0)
아내경험	전혀없음	195(37.2)	아내경험	거의매일	1(0.2)	
	가끔있음	319(60.9)		폭	전혀없음	165(31.5)
	자주있음	10(1.9)		남력	가끔있음	338(64.5)
				편경험	자주있음	19(3.6)
아내음주	전혀안마심	363(69.3)	아내음주	거의매일	2(0.4)	
	가끔마심	156(29.8)		남	전혀안마심	74(14.1)
	자주마심	5(1.0)		편	가끔마심	292(55.7)
				음주	자주마심	138(26.3)
부령부차	없음	33(6.3)	부령부차	거의매일 마심	20(3.8)	
	1-2년	124(23.6)		연	5-6년	105(20.0)
	3-4년	185(35.3)		부령	7-8년	55(10.5)
			부차	9년이상	22(4.2)	

	무 직	7(1.3)
남 편 의	일일노동자·수위·청소부·이에 준하는 직업	56(10.8)
	가계주인·외관원·중개인·상인·이에 준하는 직업· 평교사·6급공무원이하·일반회사원·위관급군인· 이에 준하는 직업	174(33.4) 182(34.9)
직 업	교감이상·5급공무원이상·은행원·대기업과장· 영관급 군인·이에 준하는 기업	87(16.7)
	교수·의사·판·검사·예술인·대기업 사장	15(2.9)

IV. 연구결과

1. 자녀학대 실태

지난 일년간 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실태와 자녀가 학대당한 경험의 차이를 χ^2 검증한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학대행동 수준별 실태는 <그림 2>와 같다.

아버지-자녀학대행동은 어머니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실제행동과 관찰한 행동 사이에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학대행동 중 어떠한 행위라도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는 89.4%였고,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는 61.4%로 어머니-자녀 학대가 아버지-자녀 학대보다 많았다. 또한 아동이 부모로부터 학대 당한 경험은 89.7%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여러 연구에서 부모의 84-97%가 아동 생활면에서 신체적 처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Gelles & Straus, 1979) 일치하고 있다. Gelles & Straus(1986)에 따르면 1975년의 연구에서는 1000명당 14%가 부모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85년의 조사에서는 10.7%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1976년 미국인의 10%만이 아동 학대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으나, 1982년 여론 조사에서는 90%가 아동학대를 아주 심각한 국가 차원의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신문 잡지 TV등 대중매체의

역할로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킴으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향상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통한 캠페인이나 부모의 자녀양육행동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면 자녀에 대한 학대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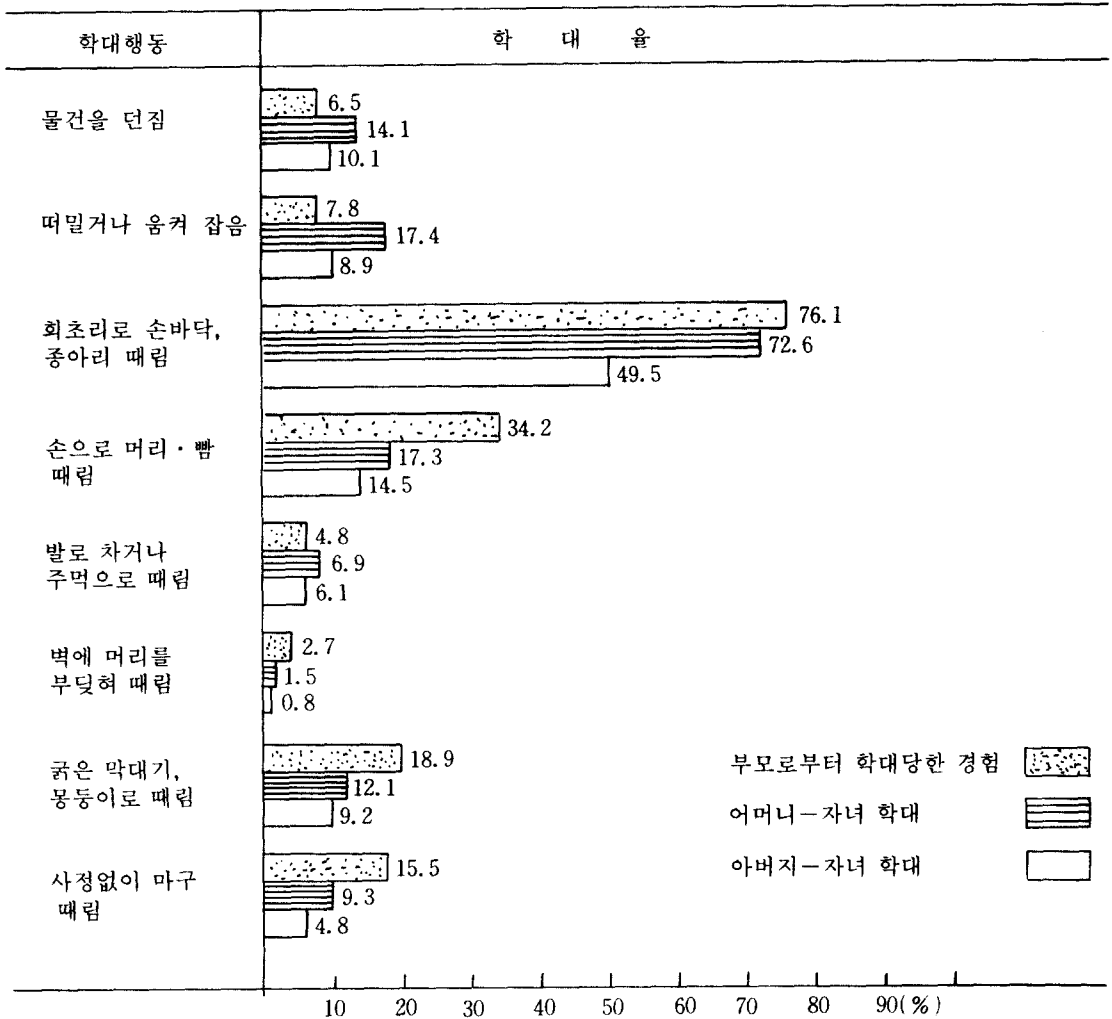
또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Gil, 1971; Gelles & Straus, 1979; 신영화, 1986)와 일치한다. 이것은 가정에서 어머니가 아동양육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아동과 상호 작용 정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2> 자녀학대 실태

	f (%)	χ^2
어머니 - 자녀 학대	466(89.4)	
아버지 - 자녀 학대	334(61.4)	27.953***
자녀가 학대당한 경험	468(89.7)	

*** p<.001

학대행동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와 같이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행동(M-C, 72.7%; F-C, 49.8%)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손바닥으로 머리·뺨을 때리는 행동(17.4%, 14.5%) 띠밀거나 움켜잡는 행동(17.4%, 8.



** p<.01 *** p<.001

〈그림 2〉 자녀학대 행동별 실태

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회초리로 손바닥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비율이 70%이상으로 나타난 점은 자녀양육에서 체벌의 사용이 용인되어 온 한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그리고 굵은 막대기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동,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등의 심한 폭력도 10% 이상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한편 아동은 부모들이 때린 것보다 대체로 더 맞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부모의 경우는 어머니-자녀학대와 아버지-자녀학대행동을 분류하였으나 아동의 경우는 양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을 합하여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흥미로운 사실은 물건을 던지거나 떠밀거나 움켜잡는 행동은 부모들이 가한 행

동보다 적게 인식하나 손으로 머리·뺨을 때리는 행동, 굵은 막대기나 몽둥이로 때리는 행동 등의 심한 폭력은 부모들이 때린 경우보다 훨씬 높게 인식하였다. 이것은 아동들이 머리나 뺨을 맞거나 심한 학대를 당했을 때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장애를 많이 입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학대받은 아동은 학대받지 않은 아동보다 분열적인 증세가 의미있게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Liner, 1989), 학대받은 아동은 Chess & Tho-

mas(1984)가 지각한 ‘difficult child syndrome’ (까다로운 아이 증후군)에 꼭 맞은 행동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Lamacchia, 1987)와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는 폭력의 세대간 연속성을 입증한 여러 연구(Graybill, 1985; Kalmuss, 1984; Kishur, 1987; Steinmetz, 1977; Straus, 1980)들로 미루어 볼때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대행동은 예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어머니-자녀 학대행동

변인	구 분	평 균	F 값	Scheffe	변인	구 분	평 균	F 값	Scheffe
		(빈 도)		-test			(빈 도)		-test
어 머 니 연 령	34세 이하	10.27(62)	3.15*		생	12년이하	10.37(119)	2.85*	
	35-39세	10.18(291)			결활	13-15년	10.09(233)		
	40-44세	9.67(138)			혼연	16-18년	9.82(106)		
	45-49세	9.47(30)			수	19-21년	9.38(47)		
					22년이상	9.44(16)			
어 결 머 혼 니 연 령	24세 이하	10.48(33)	1.34		어 음	안 마 심	9.32(74)	8.02**	
	25-27세	10.07(222)			머 마 심	9.46(137)			
	28-30세	9.97(224)			니 주				
	31세 이상	9.60(42)							
어 교 머 육 니 수 준	국 졸	10.17(77)	0.60		가	40만원미만	10.19(43)	3.01*	a
	중 졸	10.13(178)			구	40-60만원	9.93(123)		
	고 졸	9.86(205)			월	60-80만원	10.46(127)		
	전문대 졸	9.75(16)			소	80-100만원	9.52(119)		
	대 졸	10.13(39)			득	100-120만원	9.90(40)		
	대학원 이상	9.50(6)				120만원이상	10.16(69)		
폭 관 력 찰	전혀 없음	9.92(356)	1.14		폭 경	전혀 없음	9.77(195)	4.35**	a
	가끔 있음	10.21(152)				가끔 있음	10.12(316)		
	자주 있음	10.15(13)			력 험	자주 있음	11.40(10)		

* p<.05 ** p<.01 *** p<.001

a, b :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2. 가족환경변인과 자녀학대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자녀 학대행동이 가족환경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에 의하여 검증하고, 하위 영역 간에 차이 유무는 Scheffé-test에 의해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어머니의 결혼연령과 어머니의 교육수준, 어머니의 폭력관찰변인은 어머니-자녀학대행동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어머니의 연령과 결혼생활연수는 $P < .05$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연령이 어리고 결혼지속연수가 짧은 경우 학대행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젊은 어머니가 자녀를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율이 높다고 한 Whipple(198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어머니 음주 변인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술을 마시는 어머니가 학대행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 월소득은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60-80만원 집단과 80-100만원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폭력경험 변인에 있어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폭력경험이 없는 집단과 폭력경험이 자주 있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나 어릴 때 부모로부터 폭력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가 자녀를 학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연령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아버지의 연령이 35세 이하인 경우 아동학대율이 높다고 한 신영화(1986)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표집대상이 학동기 가족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 변인에 있어서 $P < .01$ 수준

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국민학교를 졸업한 집단과 고졸·대졸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교육수준이 낮은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는 율이 높았다. 이것은 신영화(1986), Deutsch(1980), Hayton(1983)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P < .0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고, 집단별로는 실제 상태의 집단, 직업 서열이 낮은 집단(수위, 청소부, 점원 등)과 직업 서열이 높은 집단(교감 이상, 5급 공무원 이상, 대기업 과장, 사업가 등)간에 차이를 보여 실직이거나 사회 승인도나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신영화(1986)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가구 월소득 변인에 있어서는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나 40만원 미만의 집단에서 학대행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직업 불만족도 변인에 있어서는 $P < .01$ 수준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집단별로는 불만족한 집단과 타집단간에 차이를 보여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학대행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학대부모는 직업에 있어 능력이 부족하며, 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Deutsch(1980), Hayton(1983)의 연구와 일치하였으며, 가족상호간의 폭력은 가장이 기술, 재능 또는 그가 원하는 높은 상태로 지향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지 못할 때 가장 빈번히 일어난다는 O'Brien(1971)의 견해를 지지하였다.

폭력관찰 변인($P < .01$)과 폭력경험 변인($P < .001$)은 각각 자녀학대행동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고, 집단 별로는 전혀 없는 집단과 가끔 있는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나 어릴 때 부모의 폭력행동을 관찰하고 폭력당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가

〈표 4〉 가족환경변인에 따른 아버지-자녀 확대행동

변인	구 분	평 균 (빈 도)	F 값	Scheffe -test	변인	구 분	평 균 (빈 도)	F 값	Scheffe -test
아버지 지연 령	34세 이하	9.17(6)	1.13		생	12년 이하	9.27(119)	0.31	
	35-39세	9.46(134)			결활	13-15년	9.23(233)		
	40-44세	9.11(253)			혼연	16-18년	9.24(106)		
	45-49세	9.24(104)			수	19-21년	9.23(47)		
	50세 이상	9.09(23)				22년 이상	8.81(16)		
아버지 지연 령	24세 이하	9.40(58)	2.21		아음	전혀안마심	9.32(74)	2.47	
	25-27세	9.38(212)			버	가끔 마심	9.07(290)		
	28-30세	9.09(201)			지주	자주 마심	9.46(137)		
	31세 이상	8.9 (50)				거의 매일	9.55(20)		
아버지 지준	국 졸	10.12(33)	3.63**	b	아	무 직	11.00(7)	5.17***	b
	중 졸	9.43(98)			버	노동 직	9.85(56)		
	고 졸	9.17(254)			지	판매 직	9.24(174)		
	전문대졸	9.00(33)				사무 직	9.10(181)		
	대 졸	8.91(87)			직	전문 직	8.88(88)		
	대학원 이상	9.13(15)			업	관리 직	9.47(15)		
가 구 월 소 득	40만원 미만	9.79(43)	3.79**		직	만 족	9.14(198)	6.07**	a
	40-60만원	9.37(123)			업	보 통	9.12(248)		
	60-80만원	9.42(126)			불	만 족	9.80(74)		
	80-100만원	8.90(119)			만	도			
	100-120만원	8.75(40)			족	만 족	9.80(74)		
120만원 이상	9.10(69)	도							
폭관 력찰	전혀 없음	9.02(302)	6.84**	b	폭경	전혀 없음	8.84(164)	8.14***	b
	가끔 있음	9.51(197)				가끔 있음	9.39(336)		
	자주 있음	9.59(22)			력경	자주 있음	9.62(21)		

* p<.05 ** p<.01 *** p<.001

a, b : 같은 문자로 표기된 것은 p<.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 없음

자녀를 확대하는 율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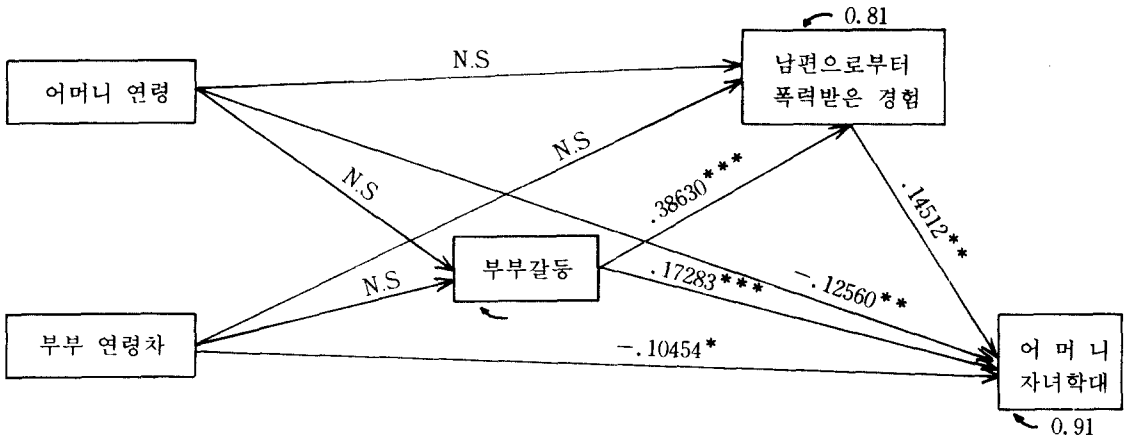
3. 자녀확대행동에 대한 인과모형 검증

부모-자녀 확대행동에 대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가족환경변인을 외생변수로 하고 부부 갈등, 부부폭력을 내생변수로 하여 경로모형을

구성하였다. 변인들 간의 경로계수는 β 계수를 사용하였고, 0.05수준에서 의미있는 변인만 인과 모형에서 도식화하였다(그림 3, 4).

갈등은 인간 상호작용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인간관계에 있어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파악함으로써 갈등을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법으로 해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재조명하기 위하여 부부갈등을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의 선행변수로 파악하였다.



(그림 3) 어머니-자녀학대에 대한 경로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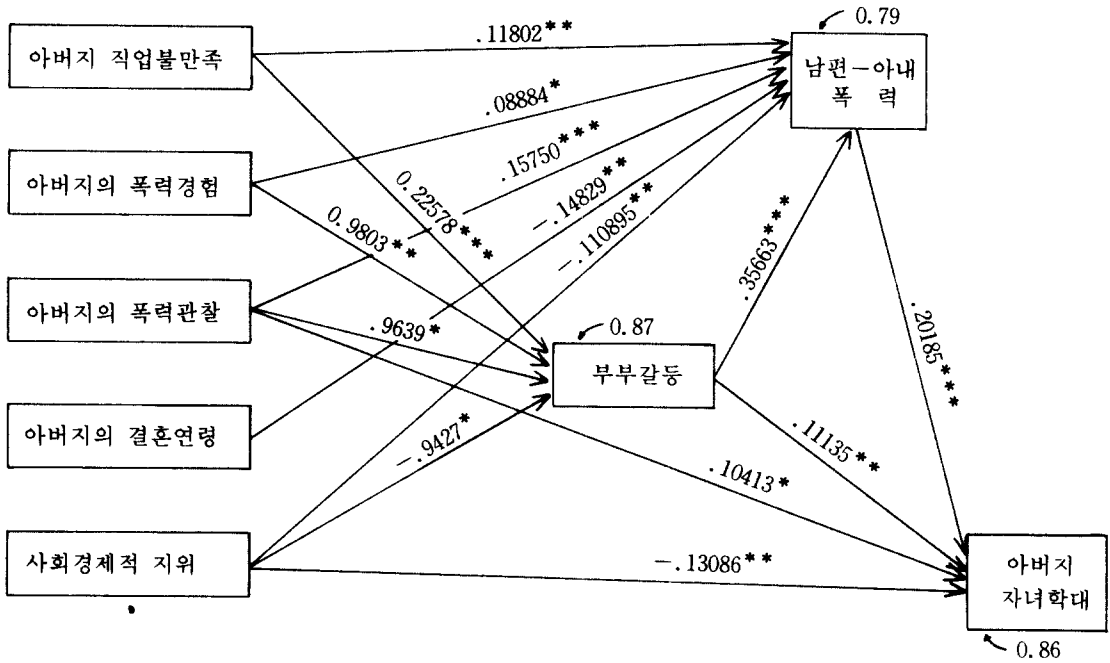
(그림 3)에 의하면 어머니-자녀 학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연령, 부부의 연령차, 부부갈등, 남편으로부터 폭력받은 경험변인이었고, 그의 부부갈등은 남편으로부터 폭력받은 경험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연령이 어리고 부부 연령차가 적으며, 부부갈등이 심할수록,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받을수록 어머니는 자녀를 때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가정의 어머니는 나이가 어리며 술을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난 Whipple(1989)의 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남편에게 구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를 학대하는 율이 높은 것은 Straus의 보고와 일치하며, Gayford(1975)의 연구에서도 구타당한 아내의 37%가 화풀이로 아이에게 구타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한 아내는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자녀에게 투사하여 이차적인 폭력을 일으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에 의하면 아버지-자녀 학대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버지의 폭력관찰, 사회경제적 지위, 부부갈등 및 아내폭력변인으로 나타났다. 그의 부부갈등은 아내폭력을 통하여 자녀학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직업 불만족도, 아버지의 폭력경험, 아버지의 폭력관찰, 사회경제적 지위변인은 부부갈등을 통하여 남편-아내폭력과 자녀학대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아버지는 어릴때 부모의 폭력행동을 관찰한 빈도가 많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부부갈등이 많을수록 자녀를 학대하는 율이 높았으며,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자녀를 더 많이 때리고 있음을



〈그림 4〉 아버지-자녀학대에 대한 경로분석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폭력관찰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폭력행동을 관찰한 빈도가 많을수록 자녀 학대율이 높다는 Straus팀(198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폭력경험 변인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하는 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Gil, 1971; Clausen, 1989)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학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직업 특징이 훈육방식과 관련이 깊다는 Steinmetz(1974)연구 결과와 아동학대 부모는 직업에 있어 능력이 부족하며 수입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Deutsch(1980), Hayton(198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내를 구타하는 남편이 자녀를 때린다는 것은 부부싸움의 해결을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아동훈육에서도 같은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Gayford, 1975; Steinmetz, 1977; McCord, 1979; 신영화 1986)와 일치하며 폭력사용이 습관화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부갈등이 자녀학대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아동구타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로 부부갈등을 제시하고 있는 Kempe(1962)등의 연구를 지지하며, 아동학대 부모는 결혼 불만족감이 높다는 Deutsch(1980), Kussin(1988), Whipple(1989)의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간접적인 아동학대 방지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상의 변인이 자녀학대를 설명하는 설명력이 다소 낮게 나타나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이외의 변인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V. 결 론

연구의 결과 분석과 논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대다수의 도시 가정에서 자녀학대행동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자녀학대행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병원, 경찰, 상담소, 법조계, 대중매체 등이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신체적·정서적 장애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어머니-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인은 어머니의 연령, 결혼생활 연수, 어머니 음주, 가구 월소득, 폭력경험변인이다.

아버지-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환경변인은 아버지의 직업 불만족, 사회경제적 지위(아버지의 직업,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구 월소득), 폭력관찰, 폭력경험 변인이다.

이상에서 폭력경험과 폭력관찰변인이 자녀학대행동에 유의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학습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태도와 자녀에게 모델로 제시되는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부모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부부관계 및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교육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부부갈등은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폭력은 자녀학대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인과관계로 미루어 보아 자녀학대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부부폭력이 해결되어야 하며, 자녀학대와 부부폭력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지역을 부산 지역으로 한정시켰으며 학동기 가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자료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가정내에서의 폭력행동은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실보다 축소해서 응답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응답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아버지-자녀 학대행동을 어머니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이 자료를 통하여 비교·분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다른 가족주기의 가족들과 타 도시의 가정으로 확대시켜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한국 가정의 자녀학대행동의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자녀학대행동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채택한 변수이외의 좋지않은 성적, 아동의 생활태도, 미숙아, 고집스런 울음 등 자녀학대 행동을 유발시키는 아동의 특성을 포함시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자녀학대에 대한 설명력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녀학대중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나 훈육의 목적인지 감정의 표출로 인한 폭력인지는 분류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규범적 폭력과 비규범적 폭력을 분류하여 연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체적 학대를 측정하는 범주를 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상해를 일으키는 세부적인 행동을 보완시킨 새로운 측정도구 개발이 요구된다. 아울러 한 가지 학대유형이 나타나면 다른 유형도 겹쳐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므로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에 대한 연구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곽영숙·홍강의(1987).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김광일 편저, 가정폭력, 310-339.

권은주(1977). 아동구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양희(1986). 한국 도시인의 가족 갈등에 관한 연구-서울시 거주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정준(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노치영(198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선미(1987). 부부간의 갈등요인에 관한 고찰.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송영자(1986). 부부간의 갈등표출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신영화(1986). 한국 아동구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안동현·홍강의(1987). 한국에서의 아동 구타 현황. 김광일편저, 가정폭력, 392-412.

이신영(1983). 결혼초기의 부부갈등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영숙(1984). 부부간의 폭력과 그 영향-가정의 의사결정권과 부인구타에 대한 태도-. 군산대학 논문집, 9, 389-401.

이현순(1982).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최윤라(1989). 학대받는 아동의 공격성과 감정이

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황영희(1984).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아동 구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청구논문.

Breiner, S. J. (1987). Qualit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child abusing population. Children's Center Spring Conference (8th, Detroit).

Calvert, A. J. (1986).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factors in the etiology of child abuse. The Univ. of Texas H. S. C. at Houston Sch. of Public Health, DRPH.

Cantrall, P. J., Carrico, M. F., Franklin, J. N., & Grubb, H. J. (1990). Violent tactics in family conflict relative to familial and economic factors. Psychological Reports, 66(3, pt 1), 823-828.

Cappel, C., & Heiner, R. B. (199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family aggress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5(2), 135-152.

Clausen, M. L. (1989). Abused Youths' attitudes toward physical punishment: test of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hysical child abuse. The Florida State Univ., PH. D.

Christopoulos, C., Cohn, D. A., Shaw, D. S., Joyce, S., Sullivan-Hanson, J., Kraft, S. P., & Emery, R. E. (1987). Children of abused women: I. Adjustment at time of shelter resid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3), 611-619.

Deutsch, M. A. (1980). Who abuses and who does not: A social competence of child abuse. Univ. of Maryland at Baltimore.

- DSW.
- Gayford, J. J. (1975). Battered wives. Medicine, Science and the Law, 15(4), 237-245.
- Gelles, R. J., & Straus, M.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and I. Ru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I). New York: The Free Press.
- Gil, D. C.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 637-648.
- Graybill, D. et al (1985). Aggression in college students who were abused as childre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6(6), 492-295.
- Hayton, J. M. (1983).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subsequent delinquency. California State Univ., M. S.
- Haskett, M. E. (1990).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of young physically abused childre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21(2), 109-118.
- Haviland, V. P. (1989). A retrospective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conjugal violence on adult children of violent homes and steps toward improved measurement. California State Univ., MA.
- Helfer, R. E., & Kempe, C. H. (1972).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Phila: J. B. Lippincott co..
- Kalmuss, S.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1), 11-19.
- Kempe, C. H. et al. (1962).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181(July), 17-24.
- Kishur, G. R. (1987). The male batterer: A multidimensional exploration of conjugal violence. Purdue Univ., PH. D.
- Kussin, J. R. (1988). Parent attitudes and use of physical punishment as influenced by child abuse consciousness, childs' age, and parental level of stress.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Los Angeles, PH. D.
- Lamacchia, R. F. (1987). The role of temperamental "poorness of fit," parenting style, and personality in parental child abuse. California School of Professional Psychology-San Diego, PH. D.
- Liner, D. (1989). Dissociation and hypnotizability in abused children. Georgia State Univ., PH. D.
- Martin, M. J., & Walters, J. (1982). Familial correlates of selected types of child abuse and negle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2), 267-276.
- McCord, J. (1983). A forty year perspective on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Child Abuse and Neglect, 7(3), 265-270.
- Mies, P. L. (1987). Marital conflict tactic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Yeshiva Univ., PH. D.
- O'Brien, J. (1971). Violence in divorce-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3(4), 692-698.
- Steinmetz, S. K. (1977). The cycle of violence. A division of Holt Reinholt and Winston. CBS Inc.

- Straus, M. A., Gelles, R. J., Steinmetz, S.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Anchor
Books.
- Strong, B., Devault, C., Suid, M., & Reynolds, R.
(1983). The marriage and family experi-
ence. West Pub.
- Whipple, E. E. (1989). The role of parental stress
in physically abusive families. Univ. of
Washington, PH. D.